

## 오륙도 칼럼



박 양 곤

그것은 가름에 내린 단비 세례이다. 여름 무더위를 속 시원하게 날려주는 쾌풍(快風)이다. 국민이 국내 정치경제로 답답증을 앓을 때, 태극전사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중할 5위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거두어 주었다. 그게 런던 올림픽이다. 올림픽은 내로라하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경쟁을 벌이는 스포츠 제전이라고 말한다. 1896년 아테네에

## 6g 순금이 무더위를 녹이다

서 대망의 첫 올림픽이 개최된 이래 120년 가까이 지나면서 지구촌 선수들 간의 경쟁력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그들이 진력을 다하는 이유는 온몸을 던진 플레이가 인정을 받기 때문이다. 이번에 우리 선수들은 금메달 13, 은메달 8, 동메달 7이라는 당찬 승리를 국민에게 바쳤다. 밤샘 응원 외에 아무 것도 보탬이 없는 우리로서는 새삼 가슴이 울컥거린 17일간의 대망이다.

온 국민이 올림픽 금메달에 울고 웃는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세계 언론들은 한국이 가장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칭찬하고 있다. 선수들이 탄 메달은 값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는다. 6g그램의 순금으로 도금되었으니 한 돈 반짜리

반지쯤이고 돈으로 따지면 80만 원 가량 된다. 희소성으로 따지면 계산이 쉽지 않다. 한국체육과학연구소는 지난 시드니 올림픽 결과물을 기준으로 금메달 하나에 188억 원의 투자액이 들어갔다고 계산했다. 하지만 어찌 금액으로 결산할 메달인가.

메달은 색깔과 관계없이 모든 체육인들이 감내해온 괴팍으로 주조된다. 순간의 승부를 위해 극기로 버틴 시간을 상상하면 금쪽스러울 정도다.

휴가와 명절이 있었을까. 하루만이라도 다리 뻗고 자거나 맛있게 먹었을까. 영화 한 편을 제대로 보진 않았을까. 친구 모임이나 가족 나들이를 몇 번이나 하였을까. 젊음이 그것을 거부하기는 말처럼 쉽지 않다. 그런데 그들이

눈 앞 행복을 마다하고 승리의 종착지를 향해 뛴 것이다. 나는 승자가 되었던 패자가 되었던 그들의 눈물 뒤에는 이러한 초인적인 세월에 대한 회억이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올림픽은 모든 나라가 국력을 기울이는 총력전이 되었다. 흔히 외교를 총선 없는 전쟁이라고 부르지만 지구촌에서는 모든 분야가 국제 경쟁의 현장이 되고 있다.

아프리카 초원을 누비던 맨발의 소년도, 안데스산맥의 잉카 후에도 모두 그들 국민의 대표선수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이루면 환호하고 좌절하면 눈물을 함께 흘린다.

우리들의 감회는 남다르다. 분단 국가가 올림픽에서 그만큼의 승리를 거둔 것이 기적이 가깝지 않은가. 외국인을 옆에서 보더라도

보라. 그들의 거대한 체격에 그냥 주눅이 든다. 먹는 것도 엄청나고 뽀아내는 숨소리는 마치 증기선이 분출하는 엔진처럼 들린다. 몸이 부딪치면 그냥 빙겨나갈 정도이다.

그런 서구의 선수들을 연이어 격파한다는 건 육체적인 힘만으로 불가능하다. 쫓겨나고, 죽자살자 하는 강, 마지막 한 점 가려까지 짜낼 때 비로소 승리가 찾아온다.

어쩌면 승리보다 최선의 분투가 더욱 값진 이유는 그 때문일 것이다. 메달을 목에 건 선수에 못지않게 대한민국이 뜨겁게 달구어진 것은 아름답게 최선을 다한 선수들이 있어서다. 교통사고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역대 여왕 장미란은 4위에 올랐다. 신아람의 멈춰버린 1초는 세계인의 안타까움을 이끌어내면서 '런던올림픽 명장면 20선'으로 꼽혔다. 태국 남자들은 핸드볼과 배구에서 메달보다 귀한 4장 신화를 이루었다. 전장과 다름없는 한일전에서 축구전사들은 일본을 이기는 법을 알고 있다는 약속을 지켰다.

그러니 노메달의 선수들이여, 당신을 또한 자랑스럽습니다. 런던 올림픽은 끝났다. 성화도 꺼졌다. 하지만 한국의 자존심을 지킨 선수들에게 보내는 박수를 그칠 수 없다. 올림픽 개최국이 바뀌고 출전 선수가 달라져도 승리의 감격과 패어플레이의 감동은 4년 후 다시 되풀이 된다.

감동적인 장면이 모두 기억으로 남겠지만, 나는 가장 아름다운 선수는 장미란이라고 생각한다. 4위에 그친 그는 경기를 마치고 '올림픽을 준비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바벨에 입맞춤을 했다. 그에게 바벨은 가장 무서운 적이라면 가장 가까운 친구다. 그것이야말로 스포츠 정신이고 인간이 지나야 할 고귀한 품성이라고 믿는다. 나아가 6g의 순금이 나타내는 정신일 것이다.

정치의 계절 2012년, 우리 선수들이 국민들에게 바친 메달 정신이 재발 흐려지지 않기를 바란다. **부경대 교수·수필가**

## 신선대

<199> 채 규종



## 선웅의 1000자 지혜 99

### 돈버는 방법

아마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물며 벼 속에 든 아이도 돈을 흔들면 바로 응애! 하고 나를 정도라 하니 다들 돈을 좋아하고 한 톨이라도 더 가지려고 애를 쓴다. 농담이지만, 돈은 사망에서 부르는 사람이 많아 어디로 갈까 고민 끝에 머리가 돌아, 예! 모르겠다! 하고 고래고래 악을 써 부르는 쪽으로 잘 넘어간다고 한다. 그럴 악을 잘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정사(程史) 부옹오적편(富翁五賊篇)에 이런 얘기가 있다. 가난하여 지붕은 사철 하늘이 보이고 언제나 쌀독이 비어있는 선비가 살고 있었는데, 그 이웃에 고래 등 같은 집에 개개지도 배가 불러 뒤뚱거리며 걸어 다니는 부자 집이 있었다.

몇 며칠을 굶다보니 아이들은 보채고 아내는 눈에 불을 켜고 북아데어 보다 못한 선비는 눈 딱 감고 부자노인을 찾아갔다. "내 주재에 부지는 흥감하고 하루 세개 밥이라도 굶지 않을 방법을 배우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부자노인은 콧방귀를 꾸며 비웃었다.

"부자 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줄 아냐? 돌아가서 3일간 목욕재계한 뒤 다시 와! 나도 맨손 맨

입에 배우지는 않았어."

사흘 뒤 다시 찾아갔더니 부자노인은 선비를 병중 밖에서 기다리게 하였다. 그리고 높다란 상을 놓고 그 위가 가져온 예물을 올려놓게 한 뒤에야 말했다.

"무릇 돈을 버는 도(道)란 먼저 다섯 가지 죄를 제거하는데 있다. 그 다섯 가지 죄이란 바로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인데 그것들을 보면 아예 못 본 척 눈을 딱 감고 외면해 버려야 하는 제 했다가는 허사야. 방법은 그것뿐이야!"

이긴 줄부들의 속성을 잘 드러낸 이야기지만 이른바 오행(五行) 또는 오상(五常)이라는, 꼭 지켜야 할 사람의 기본적인 덕목조차도 내버려야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은 꼭 필요하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져오면 만족한 걸 알고 주위도 한 번쯤 살펴볼 줄 알아야 하는데 그것도 모자라 행세까지 하려고 매관매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면 구역질이 난다.

돈을 버는 정도(正道)는 근면 성실밖에 없다. 오행오상에 버리매끼리 번 겹은 돈으로 얻은 영광, 과연 얼마나 오래 가겠나. 다 허망한 것들!

번역문화가

##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시정사황이나 미담사례를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bns4075@korea.kr

### 방지택 설치해 주길

남구청 인근 아파트에 살고 있어 동원로알듀크와 담벼락 사이의 이면 도로를 통해 출·퇴근을 하고 있다. 이곳을 오가다 보면 주저리 전동주차 맞은편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으로 인해 도로가 좁아져 통행이 어렵고 교통사고의 위험에 늘 가슴 조린다. 또한 야간에는 차량·오토바이의 과속으로 인한 소음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다. 조속한 시일 내에 불법주차 단속과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한다.

오민현(대연6동)

### 화분으로 불법주차 예방을

대연3동 교통방송국 앞 삼각지대 안에 밤이면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통행하는데 불편이 많다. 어쩔 때는 손수레도 못 지나가 위험한 차도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보았다. 전에는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주변에 화분을 설치했었는데 언제부턴가

###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 도시녹화 지속 추진

"나무 심어 고온현상 막자"라고 주영관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남구청은 금년 상반기에 용호로 중앙분리대 화단 조성, 용호로 가로수벽화단 조성, 석천아파트 일원 미관저해지 녹화, 동천삼거리 가로용벽 녹화, 유엔광화로 가로수 보식, 난간 및 가로등 꽃장식을 설치, 나무심기 행사 등 10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들 통해 느티나무 등 5종 1,300본, 홍가시나무 등 3종 6,230본, 송엽국 등 초화류 3종 100,000본, 난간·가로등 꽃장식 등 2,600개 등을 식재(설치)하는 녹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도시열섬효과를 억제하고 주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저탄소 녹색공간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하창훈>

### ■詩가 있는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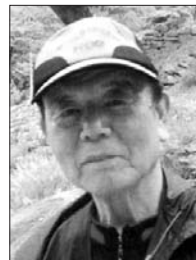
#### 가을 하늘

가을바람 산들산들  
들길 언덕에 오르면

여름을 어떻게 지냈나고  
반가운 웃음 주는 들꽃  
작은 꽃잎을 흔들며  
살면서 나를 쳐다본다.

비단 물결이 출렁이는  
황금빛 들판에 오르면

올해는 대풍년이라고  
허수아비 이야기 소리  
산들산들 들려온다



최민조 (시인·대연3동)



제14회 한·중·일 지방정부교류의향장 모습.



전제국제정시습지공원 준공 준축.



세계박람회 생태성 벤치마킹.

행은 현재 민간투자자 유치를 위해 추진 중에 있는 백운포 마리아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마리아 시설개발은 물론 부대시설이 함께 개발되는 복합마리아 시설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동양최고의 관광지

빅토리아 피크 관광안내소와 케 이블카와 에스컬레이트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해양공원을 둘러보고 구가 추진 중인 해파랑길 관광안내소와 용호Sea-Side 관광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해법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 ■나의 생각

## 가족 사랑이 치매예방의 지름길



김 선 길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발전은 의료, 영양 등 환경 개선을 기반으로 '인생 100세 시대' 장수사회를 열어가고 있다.

한국인 평균수명 61.9세였던 1970년에서 2010년 80세로 무려 20여년이 늘어나 이제 60세는 아저씨, 아줌마인 시대이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은 사회적 동력을 지속해 갈 수 있는 각 영역별 발 빠른 대응과 준비가 있어야, 비로소 온전한 축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주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노년기 본인과 가족의 큰 걱정거리인 '치매'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초기진단과 치료로 질병진행을 방지하거나, 지연할 수 있고, 고혈압, 심장병 등 위험요인만 잘 관리하면, 뇌혈관성 치매 또한 예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치매환자수와 그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해오고 있다.

2012년 현재, 전국의 치매환자수는 53만명으로 이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 589만여 명의 9%를 넘고 있어,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2008년 42만명에 비해 26.8%나 증가한 것이며, 2025년에는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진료비를 포함한 국가 총비용이 2010년 8조 7천억에

서 2012년 10조 3천억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가시적 비용문제 이외에도, 치매 발병 당사자의 개인의 존엄이 무너지고,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속담처럼 치매 환자 가족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 구체적인 상황에 부딪히면서 오는 자괴감, 가족갈등, 심지어 가족해체까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도 금년 2월 시행된 '치매관리법'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재가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된 제2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을 확정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치매를 초기 단계에 발견하여 지속적으로 치료, 보호할 경우 중증으로의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고, 요양시설 입소율을 55% 감소시킨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주도의 계획이 중요하지만, 가장 가까운 효과적인 치매예방책이라고는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예방책은 지속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누구였던지를 인식시켜주고, 인정해주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심과 소통이다.

이는 적어도 노부모를 가장 기쁘게 하고, 정신줄 잡고 살맛나게 하는 치매 예방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전래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의 정신을 되살리다면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가족적 부담을 줄이면서, 어르신들의 여생을 품격 있고 행복하게 치매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정작 필자도 노모가 계시는 자식으로서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마음은 늘 무겁기만 하다.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 남구청장, 한·중·일 지방교류 회의 참석

### 지방정부 공동발전 방안 모색, 해양리조트 사업 벤치마킹

남구청장을 비롯한 남구 대표단은 지난 7월30일부터 8월5일까지 중국 공명시에서 열린 제14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에 참석했다. 이와 함께 국제적인 선진 해양도시 홍콩을 방문, 해양리조트 관련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다.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는 지방정부간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99년 서울에서 처음 열렸다.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와 운남성 인민정부가 공동 주최한 이번 회의에는 한·중·일 3개국지방자치단체장 등 모두 257명이 참석해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지방정부의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전통문화 보호▲관광산업 진흥, 도시생태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발전, 지방정부간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발전 촉진 등 3가지 부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회의 결과 금융협력과 지진·화산 공동대응과 기상정보 교류 등

협력 분야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발굴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성과를 거뒀다.

개회식이 열린 지난달 31일 국가를 대표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주제발표와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충청남도 부지시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제교류 현황을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가치 수렴과 새로운 협력 파트너 발굴, 저개발지역 교류단체 지원으로 상생 및 협력강화를 꾀하는 공동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 샌다이시 관계자는 사례발표를 통해 대지진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조속히 재건하기 위해 '부흥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기회로 살아 새로운 자연의 방재, 견고한 도시를 구축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에너지절감과 태양광 발전, 에코도시를 위한 '신에너지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중국 강소성 무석시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매도

시 벤치마킹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자매도시의 장애인 구호, 노인재활 등 복지사업 교류를 강력히 희망했다.

대표단은 행사 3일째인 지난 1일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카르스트 지형의 석림풍경구와 소수민족의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운남 민족촌을 찾아 이곳이 공명시의 새로운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현황을 살폈다.

이어 최고의 경관과 최적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는 전지국제정시습지공원과 세계박람회 생태성, 공명시 정무센터를 차례대로 방문해 중국 지방정부의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미래 사회 건설을 위한 노력을 살폈다.

대표단은 또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선진 해양도시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홍콩의 애버딘(Aberdeen)마리나를 방문, 최고 시설을 자랑하는 계류시설을 둘러봤다.

대규모 수리시설과 클럽하우스와 레스토랑, 선상식당 등 편의시설을 갖춘 모습을 바라보며 일